

# 한은도서분류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Han-Un Decimal Classification

여 지 숙(Ji-Suk Yeo)\*

오 동 근(Dong-Geun Oh)\*\*

### 〈 목 차 〉

I. 서론	1. 한국은행과 관련된 특수주제의 취급
II. 편찬 및 개정 경위와 특성	2. 문자의 사용
III. 주요 분류표와의 비교분석	3. 조기표의 분석
1. 주류	4. 개정사항
2. 강목	V. 결 론
IV. 한은도서분류법의 특성	

### 초 록

이 연구는 우리나라 근대문헌분류사의 중요한 분류표의 하나인 한은도서분류법의 편찬 및 개정 경위를 살펴보고 편찬당시 참조한 각종 분류표와 이를 비교하고 분류표 자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한은도서분류법은 한국은행정보자료실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초판을 간행하였고, 이후 한차례 수정판을 간행하였다. 그리고 편찬 당시 주요 주류와 조기표에서 NDC를 참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교와 어학, 문학에서는 KDCP를 참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한은도서분류법(HUDC), 일본십진분류법(NDC), 조선십진분류법(KDCP), 문헌분류법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background of the first and revised editions of the Han-Un Decimal Classification(HUDC), and analyzed their relationships to and influences on other major related classification systems. HUDC was compiled in 1954 and revised in 1981. HUDC was influenced by NDC in most classes of main classes and mnemonic schedules, and influenced by KDCP in the classes Religion, Language and Literature.

Key Words: Han-Un Decimal Classification(HUDC), Nippon Decimal Classification(NDC),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by Park Bong Suck(KDCP), Library classification

\* 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wuhaha@chol.com) (제1저자)

\*\* 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odroot@kmu.ac.kr) (공동저자)

• 접수일: 2006년 2월 28일 • 최초심사일: 2006년 3월 8일 • 최종심사일: 2006년 3월 10일

## I. 서론

한은도서분류법(Han-Un Decimal Classification: 이하 HUDC라 함)은 1954년 편찬된 이래 지금까지 한국은행정보자료실에서 사용되고 있는 분류표로, 한국은행의 실정에 맞도록 자체 편찬된 분류표이다. 이 HUDC는 한국은행정보자료실을 이용하는 행원들의 도서 이용과 검색에 도움이 되고 분류업무 종사자에게는 실무에 지침이 되기 위하여 편찬된 것으로,<sup>1)</sup> 1981년 자료실에서 스태프 매뉴얼(staff manual)의 하나로 수정판을 발행하여<sup>2)</sup> 현재에 이르고 있다.

HUDC는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정보자료실에서 은행자료실이라는 특성에 맞추어 자체 편찬된 분류표로, 편찬 당시에는 한국은행정보자료실과 더불어 다른 도서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특히 이 분류표는 해방이후 한국인에 의해 편찬된 분류표로서 문헌분류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분류표이다. 그러나 현재는 한국은행정보자료실만이 사용하는 일관분류표(一館分類表)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HUDC는 해방 이후 단일 도서관이 자체 분류표로 편찬하였으며, 한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행 사용분류표이다. 우리나라에서 대다수의 도서관들이 사용하는 KDC와 DDC에 대한 연구에 비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분류표임에도 불구하고 HUDC에 대한 연구는 편찬경위와 주류 등을 간단히 소개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HUDC의 편찬 및 개정 경위를 살펴보고 이와 더불어 이 분류표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 II. 편찬 및 개정 경위와 특성

HUDC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분류표를 편찬하고 사용한 한국은행과 한국은행정보자료실의 설립과정에 대해서 살펴본다.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1909년 7월 구(舊)한국정부가 일본통감부와 “한국 중앙은행 설립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과 동시에 공포한 “한국은행조례”에 의거하여 창립되었다.<sup>3)</sup> 이로써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이 되고 이것이 한일합방 후 1911년 2월 조선은행법공포에 의해 그해 8월 조선은행이라 개칭된 후 해방 전까지 그대로 존속해 왔다.<sup>4)</sup> 해방 이후 한국은행은 1950년 5월 “한국은행법”과 “한국은행법 시행령”이 공포되어, 같은 해 6월 12일에 우리나라 중앙은행으로 업무를 개시하였다.<sup>5)</sup>

1) 高在沅, 韓銀圖書分類法: 東書·洋書 共用(서울: 韓國銀行, 檀紀4287[1954]), p.編者序.

2) 韓國銀行 圖書資料室, 韓銀圖書分類法(서울: 韓國銀行, 1981), p.1.

3) 韓國銀行, 韓國銀行四十年史(서울: 韓國銀行, 1990), p.17.

4) 大韓金融團, 韓國金融二十年史(서울: 大韓金融團, 1967), p.23.

한국은행정보자료실은 창립당시 조사부의 제1과, 제2과, 제3과를 기획조사과, 통계과, 도서과로 개편하면서 조사부 산하의 조직으로 운영되었으며, 이후 1961년 조사부 개편 때 조사부가 6개의 과로 재편되면서 편수과(編修課)에 소속되었다. 그러나 1970년 조사부를 개편하면서 편수과에 소속되어있던 도서실을 과조직(課組織)에 준한 실(室)로 개편하였다. 이후 1999년 창립 이후 유지되어 온 기존 조직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부서명칭을 '부'(部)에서 '국'(局)으로 변경하여 도서실 역시 조사국 소속이 되었다.<sup>6)</sup> 이후 도서실은 도서자료실과 정보자료실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HUDC는 『한은도서편목법』의 차매편으로 편목과 더불어 한국은행도서실의 장서정리에 완벽을 기하기 위해 간행한 것이다.<sup>7)</sup> HUDC의 모체(母體)는 HDC(가제(假題))로, HUDC의 편자가 여러 대학도서관에서 창설의 일을 할 당시 만들어 본 것을 골자로 은행도서실분류표로서의 특징을 가지도록 편찬되었다.<sup>8)</sup> 그러나 HUDC는 편찬 당시 한국은행의 도서를 분류하기 위한 분류표이나, 전체의 학문을 십진식으로 전개한 일반성 있는 분류표로,<sup>9)</sup> 은행용으로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분류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sup>10)</sup>

1954년에 초판을 발행한 이래 HUDC는 1981년 수정판이 발행되었다. 이 수정판은 초판으로 모든 학문을 체계적으로 분류·정리한다는 것이 한계에 이르러 발행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은행업무와 연관이 깊은 사회과학분야를 중점적으로 수정·보완하였는데, 그 중 초판의 수록 어휘 중 고어(古語), 외래어, 방언 등을 표준어휘로 수정하였으며 특히 금융·경제 분야에 새로운 용어를 수록하였다.<sup>11)</sup> 이렇게 HUDC는 초판 발행 이래 계속 사용되어 수정보완을 거쳐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HUDC는 제 I 표, 제 II 표, 제 III 표로 되어 있는데, 한국은행정보자료실에서는 제 III 표를 사용하였다. 한국은행이 아닌 다른 조사부도서실에서 이 분류표를 채용할 경우 일반도서는 제 II 표를, 실무관계부문은 제 III 표를 취사선택해서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다.<sup>12)</sup> 한은도서분류법에서 제 I 표는 주류표로 10구분(first summary)이며, 제 II 표는 주강표(主綱表)로 1067분(second summary), 제 III 표는 총표(總表: third summary)로 본표이다.

먼저 이러한 한은도서분류법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5) 韓國銀行, 전게서, pp.22-24.
  - 6) 韓國銀行, 韓國銀行五十年史(서울 : 韓國銀行, 2000), pp.105-137.
  - 7) 高在昶, 전게서, p.序.
  - 8) 상게서, p.編者序.
  - 9) 金正昭, 資料分類論(대구 : 啓明大出版部, 1983), p.39.
  - 10) 최달현, 이창수, 정보자료의 분류와 주제명(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5), p.41.
  - 11) 韓國銀行 圖書資料室, 전게서, p.1.
  - 12) 高在昶, 전게서, p.使用例言.

####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37권 제1호)

- ① 이 분류표는 십진식 분류표의 체계를 따랐으며, 분류기호는 아라비아 숫자만을 사용한 순수 기호로 세 자리 다음에 소숫점을 찍어 긴 분류기호로 인한 불편함을 줄이려 하였다.
- ② 명사는 모두 한글로 적고 한자를 괄호에 넣어 상호참조에 편리하게 하였으며, 동·서양서 공용이므로 영문도 병기(並記)하였다.
- ③ 초판에는 색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개정판에는 상관색인이 마련되어 있다
- ④ 한국은행조사부도서실을 위한 자체편찬분류표이며, 일관(一館)분류표이다.
- ⑤ 별도의 조기표가 마련되어 있어 분류표 전반에 걸쳐 조기성을 고려하였다.

### Ⅲ. 주요 분류표와의 비교분석

#### 1. 주류

HUDC는 우리나라를 주로 하는 입장에서 각국의 지명한 대표 분류표를 참조하여 주제를 배열 하였으며 강목의 전개에 있어서는 대부분 NDC의 최신판에 의존하였다. 또한 NDC에서 수정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수정을 기했으며, KDCP도 참조하였다.<sup>13)</sup> 주류의 배열에 참조한 각국의 지명한 대표 분류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아 주류의 주제배열에 영향을 미친 분류표를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HUDC는 DDC의 십진분류법의 체계를 본받아 이것을 한국은행의 도서자료의 분류에 적용시키려는 의도 하에 마련하였다는 편자의 의도에 따라,<sup>14)</sup> DDC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HUDC 편찬 당시 DDC의 가장 최신판은 15판이다.

또한 주류 이하의 강목의 전개는 앞서 언급한 NDC와 KDCP를 참조하였음을 편자는 밝히고 있다. HUDC의 편찬 당시 NDC의 가장 최신판은 제6판이다. 먼저 HUDC와 DDC, NDC, KDCP의 주류를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표 1>에서 주류의 배열에서 네 분류표는 모두 총류를 가장 먼저 배열하고 다음으로 철학을 배정하였다. 그러나 철학 다음에 DDC는 인문사회과학을 배정한 반면, HUDC는 이·공학을 배정하였다. 또한 DDC의 주류에는 없는 산업을 HUDC에서는 주류에 두었으며, 이후 인문사회과학을 전개하고, DDC에서는 떨어져 있던 어학과 문학을 HUDC는 7류와 8류로 인접하게 배정하였다. 그러나 가장 마지막인 열 번째 주류로 역사를 배정한 것을 두 분류표가 동일하다.

주류에서 가장 유사한 분류표는 NDC로, 이 두 분류표에서 사용한 명사가 매우 유사하다. 또한 주류의 순서에서도 자연과학, 공학 산업을 철학 다음으로 전개한 후 사회과학을 그 다음에 전개하

13) 상계서, p.編者序.

14) 상계서, p.i.

고, 다음으로 예술, 어학, 문학을 순서대로 배정하고 역사를 마지막 주류로 배정하면 HUDC의 주류와 동일하다. KDCP와는 사용한 명사와 주제의 배정이 매우 상이하다

〈표 1〉 HUDC와 DDC, NDC, KDCP의 주류비교

HUDC <sup>a</sup>		DDC <sup>b</sup>		NDC <sup>c</sup>		KDCP <sup>d</sup>	
0	총기	000	General Works	0	總記	0	총류
1	철학	100	Philosophy	1	哲學	1	철학·종교
2	자연과학	200	Religion	2	歷史	2	역사·지지
3	공학	300	Social Sciences	3	社會科學	3	어학·문학
4	산업	400	Language	4	自然科學	4	미술·예술
5	사회과학	500	Pure Science	5	工學	5	사회·교육
6	예술	600	Technology	6	產業	6	징법·경제
7	어학	700	The Arts	7	藝術	7	이학·의학
8	문학	800	Literature	8	語學	8	공학·공업
9	역사	900	History	9	文學	9	산업·교통

자료 : a 高在祿, 韓銀圖書分類法: 東書·洋書 共用(서울 : 韓國銀行, 檀紀4287[1954]).

b Melvil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15th ed.(Boston : Library Bureau, 1951).

c 森清, 日本十進分類法: 和漢洋書共用分類表及び相關索引, 新訂6-A版(東京 : 日本圖書館協會, 1951).

d 朴奉石, 朝鮮十進分類表(서울 : 國立圖書館, 檀紀4280[1947])를 참조하여 재편

다른 세 분류표는 주류에서 먼저 인문사회과학을 전개 한 뒤 이·공학을 배정하였으나, HUDC는 이·공학을 먼저 전개한 뒤 인문사회과학을 배정하였다. 편자가 밝힌 이러한 주류의 배정은 인간의 근본적인 특성인 사고과정에 대한 것을 제1류로 배정한 뒤 주위환경과 의식주와 관련된 것을 2, 3, 4류에 배정하였으며,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된 뒤에 인간의 집단 사회생활과 관련된 것을 5류에 배정한 것이다. 이후 마음의 여유로 인한 창작활동과 커뮤니케이션, 정서 및 사상적인 기록과 관련된 것을 6, 7, 8류에 배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인류의 역사와 관련된 것을 9류로 전개하였다.<sup>15)</sup>

이렇게 HUDC와 DDC, NDC, KDCP의 주류를 비교한 결과 HUDC의 주류는 DDC와 NDC를 주로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류에 사용한 명사와 주류의 배치 등을 보았을 때 NDC와 가장 유사하며 DDC와도 상당히 유사한 점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류에서 주제의 배정순서는 HUDC만의 독특한 순서로 배정하였다.

## 2. 강목

주류 이하 강목의 전개에서 편자는 NDC와 KDCP를 주로 참조하였음을 밝혔다.<sup>16)</sup> HUDC의 편찬연도인 1954년과 비교했을 때, NDC 중에서 가장 최신판은 1950년에 편찬된 제6판이다. 다음

15) 상계서, pp.iii-v.

16) 상계서, p.編者序.

에서는 이 세 분류표의 강목을 비교하여 HUDC의 주류순서에 따라 비교해 본다.

#### 가. 총기

총기에 전개된 주제는 세 분류표 모두 유사하나, 특히 HUDC와 NDC가 유사하다. 이 두 분류표는 0 총기에 전개된 강목에서 주제의 전개순서가 거의 유사하다. 단지 다른 것은 언어별, 국가별 구분이 있을 경우 NDC는 일본어 및 일본을 가장 먼저 전개하였으나, HUDC는 한국어를 가장 먼저 전개한 것이다.

그리고 090을 NDC는 공기호로 남겨 두었으나, HUDC는 이를 한국은행을 배정하여 그 세목에는 한국은행 간행물과 본점 및 지점, 은행정책·행정, 경영·실무, 은행사, 전기 등을 전개하였다. 이는 한국은행과 관련된 자료를 한곳에 모을 수 있도록 하여, 한국은행도서관의 이용자인 행원들의 이용에 편리를 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나. 철학

HUDC의 주류 1에 사용된 명사는 철학이지만, 주류 1에는 철학, 교육, 종교가 전개되어 있다. NDC와 KDCP는 교육을 사회과학에 전개하였으나 HUDC가 교육을 철학 및 종교와 함께 하나의 류에 배정한 것이 특이하다. 이는 HUDC가 5 사회과학 아래에 금융·은행을 강단계에 배정하기 위해 대신 교육을 철학 및 종교와 함께 주류 1에 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철학에 전개된 주제는 NDC와 HUDC가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종교에서는 KDCP와 HUDC가 유사하여, NDC는 종교를 신도, 불교, 기독교로 전개한 반면 한은도서관분류법과 KDCP는 불교, 기독교, 기타종교로 전개하였다.

HUDC는 철학의 강목전개에서는 NDC를, 종교의 강목전개에서는 KDCP를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 다. 자연과학

HUDC에서 자연과학의 강목전개 역시 NDC와 매우 유사하다. 강단계에 전개된 주제와 그 주제의 전개순서가 NDC와 완전히 동일하며, 목단계의 전개도 매우 유사하다. 단지 수학에서 NDC는 화한산법(Mathematics of Nippon and China)을 전개하였으나 HUDC는 고대산법(Mathematics of Korea and China)을 전개한 점이 다르며, 이는 KDCP와 동일하다.

#### 라. 공학

공학의 강목전개에서 HUDC는 NDC와 KDCP를 모두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세분류표의 공학 관련 강목을 비교하면 <표 2>와 같다.

〈표 2〉 HUDC와 NDC, KDCP의 공학류 비교

HUDC <sup>a</sup>		NDC <sup>b</sup>		KDCP <sup>c</sup>	
300	공학·공업	500	工藝學 工業 及 工業總記	80	공학, 공업 총류
310	토목공학	510	土木工學	81	공업기초학, 발명
320	건축학	520	建築學	82	토목공학, 위생공학
330	기계공학	530	機械工學	83	건축공학
340	전기공학	540	電氣工學	84	기계공학, 자동차공학
350	통신공학	550	鑛山工學	85	전기공학, 통신공학
360	조선·병기공학	560	海事工學	86	조선·병기·항공공학
370	광업·야금학	570	化學工學	87	광산학, 광업 금속공학
380	화학공업	580	製造工學	88	화학공업, 식료품공업
390	섬유·기타공업	590	家事	89	제조공업, 수공업

자료 : a 高在禎, 韓銀圖書分類法: 東書·洋書 共用(서울 : 韓國銀行, 檀紀4287[1954]).

b 森清, 日本十進分類法: 和漢洋書共用分類表及び相關索引, 新訂6-A版(東京 : 日本圖書館協會, 1951).

c 朴奉石, 朝鮮十進分類表(서울 : 國立圖書館, 檀紀4280[1947])를 참조하여 재편

HUDC의 공학 및 공업의 강단계 전개는 주로 KDCP의 전개를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NDC와 동일한 순서와 명사를 사용한 토목공학, 건축학, 기계공학, 전기공학은 강목의 전개에서도 NDC의 전개순서를 따랐다. 그러나 강단계의 통신공학, 조선·병기공학은 KDCP의 전개를 따른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광업·야금학, 화학공업, 섬유·기타 공업의 전개는 KDCP와 NDC를 적절히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 마. 산업

HUDC는 산업에서 강목의 전개 역시 NDC와 KDCP를 모두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HUDC는 산업관련 주제를 농업-원예-축산-임업-수산업-상업-교통-통신-가사로 전개하였다. NDC는 가사를 공학 아래에 배정하고 원예와 축산 사이에 잠사업(蠶糸業)을 배정하였으며, KDCP는 사회·교육 아래에 가사를 배정하고, 농업 다음에 임업-축산-잠업·제사업(製絲業)의 순서로 전개하였다. HUDC에서는 축산업 아래 양잠 및 잠사업을 두었다. 가사를 산업에 분류하지 않은 NDC와 KDCP에 비해 HUDC는 산업 아래에 가사를 배정한 점이 다르나, 산업과 관련한 주제와 전개순서는 세 분류표가 매우 유사하다.

산업관련 주제의 목단계 전개에서 NDC와 유사한 주제는 농업, 원예, 수산업, 상업이며, NDC와 KDCP를 혼용하여 전개한 것은 임업과 교통, 통신이다 이러한 주제는 전개순서와 사용한 명사가 NDC 및 KDCP와 매우 일치한다.

HUDC에서 산업과 관련된 강목을 비교한 결과 주로 NDC를 참조하였으며, KDCP를 부분적으로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바. 사회과학

HUDC에서 사회과학은 매우 특수한 부분이다. HUDC는 은행용으로 편성한 것과 일반도서관을 위한 것을 각기 따로 전개하였다. 먼저 이 두 사회과학류와 NDC 및 KDCP의 사회과학류를 비교하면 <표 3>과 같다.

<표 3> HUDC와 NDC, KDCP의 사회과학 비교

HUDC <sup>a</sup>				NDC <sup>b</sup>		KDCP <sup>c</sup>	
은행용		일반도서관용					
500	사회과학	500	사회과학	500	社會科學	50	사회
510	정치	510	정치	510	政治	51	사회정책, 사회사상, 문제
520	법률	520	행정	520	法律	52	민속학, 풍속, 습관
530	경제	530	법률	530	經濟	53	가사, 육아법
540	금융, 은행	540	경제	540	財政	54	교육, 교육학
550	재정	550	재정	550	統計, 統計學	55	교수법, 교과과정
560	사회	560	사회	560	社會	56	보통교육, 가정교육
570	민속, 풍습	570	민속, 풍습	570	教育	57	전문교육, 특수교육
580	국방, 군사	580	국방, 군사	580	民俗, 風俗習慣	58	사회교육
590	통계	590	통계	590	國防, 軍事	59	운동, 오락

자료 : a 高在禎, 韓銀圖書分類法: 東書·洋書 共用(서울 : 韓國銀行, 檀紀4287[1954]).  
 b 森清, 日本十進分類法: 和漢洋書共用分類表及相關索引, 新訂6-A版(東京 : 日本圖書館協會, 1951).  
 c 朴奉石, 朝鮮十進分類表(서울 : 國立圖書館, 檀紀4280[1947])를 참조하여 재편.

HUDC의 은행용 사회과학류의 전개에 대한 편자의 의도는 의식주가 풍족한 그 바탕위에서 천하의 경륜(經倫)이 이루어지게 되고 여기서 사회의 경제가 논의되고 건전한 재화의 유통과 조절을 통해서 집단사회의 복지와 '부'(富)가 유지 신장되는 것으로,<sup>17)</sup> 이러한 편찬의도에 따라 사회과학류의 강목은 경제-금융-은행-통계의 순으로 전개되었다.

일반도서관용 사회과학 부분은 다른 어느 류보다 과중한 부담을 지고 있으므로, 교육을 160에 배정하고 정치에서 행정을 분리하여 독립시켰다.<sup>18)</sup> 이러한 의도에 따라 편찬된 일반도서관용 사회과학류의 전개는 NDC의 사회과학에서 교육을 빼고 정치 다음에 행정을 추가한 뒤, 통계를 가장 마지막에 전개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과학류의 전개에서 HUDC는 은행용과 일반도서관용을 별도로 마련하였는데, 일반도서관용의 경우 NDC를 주로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은행용의 경우에도 KDCP보다는 NDC를 주로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17) 상계서, p.iv.  
 18) 상계서, p.xiii.



사. 예술

HUDC의 예술류 전개는 NDC와 매우 유사하다. 두 분류표에서 예술의 전개는 조각·회화·서도·판화·사진·공예미술·음악, 무용·연극, 영화·운동, 경기·유예, 오락으로, 전개한 주제와 사용한 명사, 전개순서에서 거의 동일하다. 또한 강 이하 목의 전개에서도 매우 유사한 전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KDCP와는 매우 다른 전개를 보이고 있어, 예술의 전개에서 HUDC는 주로 NDC를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아. 어학과 문학

KDCP는 어학과 문학을 한 개의 주류에 배정하여 전개한 반면 HUDC와 NDC는 각기 독립된 주류로 전개하였다. 그러나 세 분류표는 모두 어학과 문학의 전개에서 조기성을 가지고 전개하였다. 먼저 세 분류표의 어학과 문학을 비교하면 <표 4>와 같다.

<표 4> HUDC와 NDC, KDCP의 어학 및 문학의 비교

HUDC <sup>a</sup>				NDC <sup>b</sup>				KDCP <sup>c</sup>	
700	어학	800	문학	800	語學	900	文學	30	어학
710	한국어	810	한국문학	810	日本語	910	日本文學	31	조선어
720	일본어	820	일본문학	820	中國語	920	中國文學	32	중국어, 동양제어
730	중국어, 동양제어	830	중국문학, 동양제문학	830	英語	930	英米文學	33	일본어, 아이누어
740	영어	840	영·미문학	840	ドイツ語	940	ドイツ文學	34	서양제어
750	러시아어	850	러시아문학	850	フランス語	950	フランス文學	35	문학
760	독일어	860	독일문학	860	スペイン語	960	スペイン文學	36	조선문학
770	불란서어	870	불란서문학	870	イタリア語	970	イタリア文學	37	중국문학, 동양제국문학
780	이태리어	880	이태리문학	880	ロシア語	980	ロシア文學	38	일본문학
790	기타제국어	890	기타제국문학	890	その他諸國語	990	その他諸國文學	39	서양문학

자료 : a 高在昶, 韓銀圖書分類法: 東書·洋書 共用(서울 : 韓國銀行, 檀紀4287[1954]).  
 b 森清, 日本十進分類法: 和漢洋書共用分類表及相關索引, 新訂6-A版(東京 : 日本圖書館協會, 1951).  
 c 朴奉石, 朝鮮十進分類表(서울 : 國立圖書館, 檀紀4280[1947])를 참조하여 재편.

HUDC와 KDCP는 우리나라 언어와 문학을 가장 먼저 전개한 점이 동일하나, KDCP는 중국어 및 중국문학을 일본어 및 일본문학에 앞서 전개하였으나 HUDC는 일본어를 중국어에 앞서 전개하였다. 서양제국어의 전개에서 HUDC는 영어-러시아어-불란서어-이태리어의 순으로 전개하였고, NDC는 영어-독일어-프랑스어-스페인어-이탈리아어-러시아어로 전개하였다. KDCP는 영어-독어-불어-러어-이어(伊語)-서반아어로 전개하였다. 이러한 서양제국어의 전개에서 볼 때 HUDC는 NDC보다는 KDCP를 주로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문학에서도 동일하다.

#### 자. 역사

HUDC는 역사의 전개에서 NDC와 매우 유사하다. NDC는 역사에서 일본을 가장 먼저 전개한 뒤 아시아-유럽-아프리카-북아메리카-남아메리카-오세아니아-전기-지지·기행의 순으로 전개하였다. HUDC는 한국을 가장 먼저 전개하였고, 그 다음의 전개순서는 NDC와 동일하다. KDCP는 이와는 달리 역사는 조선-동양-일본-서양으로 전개한 다음 전기를 배정하였다. 전기 다음으로 지지-조선-아시아-서양으로 전개하여 HUDC와 NDC는 매우 다른 전개를 보였다.

이러한 비교의 결과 HUDC는 역사류의 전개에서 NDC를 주로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주류와 강목의 전개를 비교한 결과, HUDC는 주로 NDC를 참조하였으며 부분적으로 KDCP를 참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NDC를 참조한 주류는 총류와 철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예술, 역사이며, KDCP를 참조한 주류는 공학, 산업이다.

## IV. 한은도서분류법의 특성

### 1. 한국은행과 관련된 특수주제의 취급

HUDC는 한국은행정보자료실 분류표로서의 특징을 살려 편찬한 분류표로 이와 관련하여 편찬된 주제들이 있다.

그 중 분류표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앞서 언급한 대로 090에 한국은행을 배정한 것이다. HUDC는 한국은행에서 간행한 도서자료나 한국은행에 과거에 근무하고 또는 현재 적을 두고 있는 행원의 저작들을 광의적인 의미에서 총괄하여 090을 설치하여 별치취급을 해서 하나의 기념문고로 하였다. 또한 동일한 도서가 2부 이상 있는 경우 그 중 한 부는 090에, 기타는 일반서로 해서 분류하며, 한 부밖에 없는 것은 원칙적으로 090에 모았다.<sup>19)</sup>

이 090 아래에는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잡지 및 연감을 전개하였는데 그 중 본점의 각부 또는 각과 행원의 내외보고(內外報告)나 자료를 모은 조사보고는 가장 마지막에 전개되었다.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간행물은 간행물명에 따라 전개하였고, 조사보고는 부명(部名) 또는 과명(課名)으로 전개하였다. 이 외에도 금융 및 은행관계 신문 및 잡지와 은행정책 및 행정, 은행경영 및 실무, 은행사(銀行史) 및 은행지(銀行誌), 전기 등을 전개하였다.

090과 더불어 HUDC의 특수한 주제 분야는 사회과학이다. HUDC는 앞서 언급한 대로 사회과학의 전개에서 은행용과 일반도서관용을 각기 별도로 마련하였다. 이 중에서 은행용 사회과학류의 전개는 한국은행조사부도서실의 기능을 반영하여 편찬된 것이다.

19) 상계서, p.lxiii.

한국은행정보자료실의 주요한 기능의 하나는 조사부의 중대하고도 광범한 조사연구 및 참조업무에 효과적인 내외의 자료원이 되는데 있다. 그러므로 특히 사회과학부문에 역점을 두어 '경제'에서 '금융, 은행'을 별립(別立)하였고, 그리고 경제, 금융·은행, 재정과 관계된 도서는 집중주의를 택했다. 이에 따라 527 제법(諸法)에는 모든 부문의 특수법률을 모으기로 하였으나, 경제법, 금융·은행법, 재정법은 각각 경제, 금융·은행, 재정에 모이는 방법을 택했다. 이 세 개 부문에 관한 것은 총서나 전집에 있어서도 집중주의를 택했다.<sup>20)</sup> 이러한 예는 분류표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데, 그 중 하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411 농업경제(農業經濟)

.5 농업금융(農業金融), 자본(資本), 자금(資金)

→ 546

※ 금융법규(金融法規) → 542.2

그러나 이 세 부문을 제외한 각 분야의 모든 특수법은 일괄하여 527에 모아 분류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예 역시 분류표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데, 그 중 하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400 산업

※ 산업법 → 527

475 하운(河運), 운하(運河)

※ 법규(法規) → 527

그리고 HUDC는 조사부의 성격으로 보아 특히 중요한 부문인 통계를 주제에 상관없이 590 통계에 모아 분류하였다. 그리고 일반 현행분류표에서 수학에 있는 '계산법, 확률론'을 599에 편입하였으며, 통계각론도 599에 모아 분류하였다. 이러한 예 또한 분류표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데, 그 중 하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400 산업(產業)

[408] 통계(統計)

※ 상공통계(商工統計) → 590

20) 상계서, p.lxv.

이러한 특수주제의 취급으로 인해 HUDC는 한국은행 관련 자료와 경제, 금융·은행, 재정, 법, 통계의 자료를 한곳에 모아 한국은행정보자료실을 이용하는 행원(行員)들의 이용 및 조사의 편리를 기하였다.

또한 한국은행과 관련한 주제들이 각 소주제 내에 지시사항으로 제시되었다.<sup>21)</sup> 그 예는 다음과 같다.

219 고대산법

.9 주산 → 599.69

※ 이것도 일반도서관에서는 여기에

이렇게 HUDC는 한국은행과 관련된 자료와 한국은행 업무와 관련된 주제는 학문분야에 상관없이 되도록이면 한곳에 모으도록 의도하여, 이용자의 자료이용에 편리성을 기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 2. 문자의 사용

HUDC는 본표의 분류기호에 문자를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문자는 앞서 언급한 특수주제 중에서 090과 590에 사용되었다. 090에서는 090.7 축간서(逐刊書), 연감의 전개에 문자가 사용되었다. HUDC는 090.7에 한국은행에서 간행한 것만을 분류하였는데, 그 구분을 간종별(刊種別)로 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간행한 잡지 및 연감은 090.7이라는 기본번호(base number)에 각 간행물을 구별하기 위한 알파벳 대문자가 부기(附記)되었다. 그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090 한국은행(韓國銀行)

090.7 축간서(逐刊書), 연감(年鑑)

.7A 한국은행주보(韓國銀行週報)

.7B 조사단보(調查單報)

분류기호에 문자를 사용한 것은 590 통계이다. 이 통계는 각 국가별로 구분되었는데, 각국의 통계에 공통으로 적용될 분야를 '부문구분'을 마련해 기호를 조합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놓았다. 이것은 DDC의 부가표(add table)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590 통계에만 적용된다. 이 부문구분은 편의상 『한국은행조사월보』와 기타 대표적 통계월보의 통계항목을 참작해서 실제조사에 편의(便宜)토록 했다.<sup>22)</sup> 그리고 알파벳 대문자 한 자를 사용하여 17개 분야로 일차 구분 한 뒤, 여기에

21) 任鍾淳, 分類表比較研究(서울 : 연세대학교도서관학과, 1963), p.20.

알파벳 대문자 한 자를 더해 이차구분 하였다. 부문구분의 일차구분을 제시하면 <표 5>와 같다.

<표 5> HUDC의 부문구분

기호	항목	기호	항목
A	인구	M	영토, 자원, 국부(國富) 및 국민소득
B	사업소 및 노동력	N	국민소득
C	건설공업	P	사회일반
D	공(工), 광업	Q	재해 및 사고
E	농림, 수산업	R	보건 및 위생
F	상업	S	사법, 경찰
G	무역, 외자, 국제수지	U	국방, 군사
H	경제일반	V	교육, 문화, 종교
J	통화 및 금융	X	축간서
K	기업경영	Y	연감, 연보
L	재정 및 국유재산	Z	편람, 요람

자료: 高在昶, 韓銀圖書分類法: 東書·洋書 共用(서울: 韓國銀行, 檀紀4287[1954]), pp.129-135를 참조하여 재편.

이 부문구분의 사용례는 다음과 같다.

한국의 국민소득 → 591.N

일본의 국민소득 → 592.N

미국의 국민소득 → 595.N

본표에서의 이러한 문자를 사용하여 분류항목을 전개한 것과 부가표를 사용한 예는 이전의 분류표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으로, DDC의 부가표와 문자사용 임의규정(options)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 3. 조기표의 분석

HUDC는 별도의 조기표(助記表)를 마련하여 분류표 전반에 걸쳐 조기성을 가지도록 하였다. HUDC에서 사용한 조기표는 주류구분, 일반형식구분, 지리구분, 한국지방구분, 한국시대구분, 국어구분, 국어공통구분, 문학형식구분으로 모두 8개 이다.

#### 가. 주류구분

주류구분(主類區分)은 10개의 주류에 포함된 주제들을 열거하여 한자리의 아라비아 숫자로

22) 高在昶, 전게서, p.LXVi.

표현한 것으로, 주류표에는 각 주류에 하나의 주제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주류구분에는 그 주류에 포함된 다수의 주제들을 제시하였다. 먼저 이 주류구분을 주류와 비교하여 제시하면 <표 6>과 같다.

<표 6> 주류구분

주류구분		주류표	
0	총기, 한국은행	0	총기
1	철학, 교육, 종교	1	철학
2	수학, 자연과학, 의학	2	자연과학
3	공학, 공업, 광업, 기술	3	공학
4	산업, 농, 축, 임, 수산업, 상업, 교통	4	산업
5	사회과학, 경제, 금융, 은행, 재정, 통계	5	사회과학
6	예술, 운동, 유예, 오락	6	예술
7	어학	7	어학
8	문학	8	문학
9	역사, 전기, 지지	9	역사

자료: 高在昶, 韓銀圖書分類法: 東書·洋書 共用(서울: 韓國銀行, 檀紀4287[1954]), p.iii, p.3을 참조하여 재편

이 주류구분은 NDC의 主分類區分을 참조한 것으로 보이며, HUDC의 주류표에 있는 주제와 주류구분에 있는 주제는 동일하며 분류기호 또한 동일하다. 이 주류구분은 그 자료의 주제에 해당하는 기호에 본표의 분류기호를 조합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예를 들면 HUDC는 각종 법을 527에 모아 분류하도록 하였다. 이 527 아래에 각종 법을 다시 구분하기 위해 본표에 있는 각 주제의 기호를 527 다음에 부기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또한 경제법은 527(법) + 530(경제) → 527.53이 되고, 상법은 527(법) + 460(상업) → 527.46이 된다. 이러한 주류구분을 통해 본표에 있는 전체 주제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류기호를 조합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나. 일반형식구분

일반형식구분은 총기(總記) 공통세목이라고도 하여, 주로 각 주제의 가장 처음에 그 주제 분야를 망라하는 부분에 공통적으로 전개되는 분류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일반형식구분은 DDC의 표준세구분에 해당 하는 것으로, 이론, 연구와 같이 접근법 내지는 표현형식이나 서목(書目), 논문, 총서, 축차간행물, 연감과 같은 물리적 형식에 대해 공통적인 기호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조기표이다. HUDC의 일반형식구분은 NDC의 일반형식세목(一般形式細目)과 KDCP의 형식구분을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이 세 분류표의 형식구분을 비교하면 <표 7>과 같다.

〈표 7〉 HUDC와 NDC, KDCP의 형식구분

HUDC <sup>a</sup>		NDC <sup>b</sup>		KDCP <sup>c</sup>	
01	이론, 통론, 개론, 원리, 철리, 학설, 철학, 법칙, 분류, 목적, 효용, 주의	01	理論, 通論, 概論, 原理, 哲理, 學說, 哲學, 法則, 分類, 目的, 效用	0	총론
02	연구 및 지도법, 연습	02	歷史, 沿革, 史話, 史談, 史料, 緣起, 事情, 狀況	1	이론
03	사서(辭書), 서목, 도서목록 및 해제	03	辭書	2	사전(史傳)
04	학회, 협회, 회의, 조합, 단체, 의사록, 회보, 규약	04	論文, 講演集	3	사전(辭典), 서목 제표(諸表)
05	논문, 강연집	05	逐次刊行書, 定期刊行物, 新聞, 雜誌, 紀要, 報告	4	총서, 진집
06	총서, 전서, 진집, 진총, 선집, 강좌, 강의록, 자료집	06	學會, 協會, 會議, 組合, 團體, 議事錄, 會報, 規約	5	논저, 강론집
07	축차간행서, 정기간행서, 잡지, 신문	07	研究, 指導法, 演習	6	학회, 단체
08	통계, 도표	08	叢書, 全集, 選集, 講座, 講義錄	7	통계, 연감
				8	기간서(期刊書)
				9	잡서

자료 : a 高在稔, 韓銀圖書分類法: 東書·洋書 共用(서울 : 韓國銀行, 檀紀4287[1954]).

b 森清, 日本十進分類法: 和漢洋書共用分類表及相關索引, 新訂6-A版(東京 : 日本圖書館協會, 1951).

c 朴奉石, 朝鮮十進分類表(서울 : 國立圖書館, 檀紀4280[1947])를 참조하여 재편

HUDC 일반형식구분의 01 에서 07 까지 사용한 명사는 NDC 의 일반형식세분과 매우 유사하여 NDC를 주로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08 의 통계 도표는 KDCP 를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형식구분은 분류표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데, 별도의 지시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지시는 주기의 형식으로 제시하였는데, 형식은 분류항목 아래 “※.....은 형식구분(形式區分) 한다”로 나타난다. 그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60 교육(教育)

※ .2-.8은 형식구분(形式區分) 한다.

310 토목공학(土木工學)

※ .1-.7은 형식구분(形式區分) 한다.

이러한 형식구분을 통해 한은도서분류법은 조기성을 기했으며, 반복적인 전개를 피하였다.

#### 다. 지리구분

지리구분은 자료가 특정 지역에 대한 것일 경우, 이 지역을 표현하기 위해 세계 각 지역을 별도의 표로 구분해 놓은 것이다. HUDC는 지역을 크게 대륙별로 나누었는데, 가장 먼저 전개한 것은

한국이다. 한국이외의 지역은 대륙단위로 전개하였다. 이 지리구분 역시 NDC와 매우 유사하며, KDCP와는 상이하다. HUDC의 지리구분을 NDC의 지방구분(地方區分)과 비교하여 제시하면 <표 8>과 같다.

<표 8> HUDC와 NDC의 지리구분

HUDC <sup>a</sup>		NDC <sup>b</sup>	
1	한국	1	日本
2	아세아	2	アジア
3	유유럽	3	ヨーロッパ
4	아프리카	4	アフリカ
5	북아메리카	5	北アメリカ
6	남아메리카	6	南アメリカ
7	오세아니아	7	大洋洲

자료 : a 高在禎, 韓銀圖書分類法: 東書·洋書 共用(서울 : 韓國銀行, 檀紀4287[1954]).

b 森清, 日本十進分類法: 和漢洋書共用分類表及び相關索引, 新訂6-A版(東京 : 日本圖書館協會, 1951)를 참조하여 재편.

<표 8>에 나타나는 것처럼, HUDC는 한국을 NDC는 일본을 가장 먼저 전개한 것과, 마지막으로 HUDC는 오세아니아를 NDC는 대양주를 전개한 것을 제외하고는 동일하다. 이렇게 자국을 제외하고는 대륙별로 구분한 NDC의 방법을 HUDC가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지리구분은 HUDC에서 각 주제의 역사, 지리에 해당하는 항목에서 적용되었는데, 이 역시 별도의 지시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지시는 주기의 형식으로 제시하였는데, 형식은 분류항목 아래 “※.....은 지리구분(地理區分) 한다”로 나타났다. 그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9 과학사(科學史)

※ .1-.7은 지리구분(地理區分) 한다.

401 산업정책(產業政策)

※ .1-.7은 지리구분(地理區分) 한다.

이러한 지리구분을 통해 HUDC는 조기성과 더불어 자국우위를 기할 수 있었으며, 또한 지역의 중복전개를 피할 수 있었다.

라. 한국지방구분

한국지방구분은 자료가 한국의 특정 지역에 대한 것일 경우, 이 지역을 표현하기 위해 한국의



지역을 별도의 표로 구분해 놓은 것이다. HUDC에서는 한국을 9개의 도(道)로 구분하였다. 이것은 NDC가 일본지방구분을 9개의 지방으로 나누어 전개한 것을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HUDC에서 한국지방구분은 1 경기도, 2 충청도, 3 전라도, 4 경상도, 5 강원도, 6 황해도, 7 평안도, 8 함경도이다. 이러한 간단한 한국지방구분을 보완하기 위해 HUDC는 910 한국역사 아래 911-918의 전개를 이용하여 좀 더 상세하게 한국의 지역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역시 NDC에서 일본 지방구분을 보완하기 위해 210 일본역사 아래 211-219의 전개를 이용하여 상세한 지역구분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을 참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한국지방구분은 해당 분류항목 아래 “※ 한국지방구분을 한다” 또는 “→ 911-918”로 나타났다. ‘→’는 도보라의 뜻으로 참조하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한국지방구분은 한국과 관련된 주제에서 나타나는데, 그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18.64 지방 의회(議會)와 선거(選舉)

※ 한국지방구분을 한다

990 지지(地誌), 기행(紀行)

991 한국(韓國)

→ 911~918

HUDC의 한국지방구분은 NDC를 참조한 것으로 보이며, 별도의 보조표로 한국의 지역을 크게 구분한 뒤 본표의 전개를 이용하여 상세히 전개하였다.

마. 한국시대구분

한국시대구분은 자료가 한국의 특정 시대에 대한 것일 경우, 이 시대를 표현하기 위해 한국의 시대를 별도의 표로 구분해 놓은 것이다. 한국의 시대를 분류기호 2-7까지 6개로 구분한 것으로 910 한국역사 아래 910.1-.7에도 동일하게 전개되어 있다. 이것은 NDC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한국시대구분이 2부터 시작한 것도 NDC와 동일하며 NDC가 210 일본역사 아래 동일한 시대구분을 전개한 것도 동일하다. 그러나 다른 점은 HUDC는 한국시대구분과 본표 910.1-.7의 시대구분이 동일한 반면, NDC는 일본시대구분표는 6개의 시대로만 구분 한 뒤 210아래에는 각 시대에 따라 상세히 세분한 것이 다르다.

HUDC의 한국시대구분은 2 상고시대-삼한이전, 3 중고시대-삼국 및 신라, 4 근고시대-고려, 5 근세시대-조선 및 한국, 6 최근시대-일정시대, 7 현대-해방이후로 구분하였다. 이 한국시대구분은 본표에 지시된 것이 없으며, 단지 한국시대구분표 아래에 “※모든 것의 시대구분은 대충 이것을

준용하여 결정 한다”라는 지시가 있다. 이러한 지시에 따라 본표에서 한국시대구분과 관련된 지시는 별도로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한국시대구분의 예로 고려문학은 810.9(문학사) + 4(고려시대)가 되어 810.94가 된다. 이러한 한국시대구분으로 인해 자료가 한국의 특정 시대에 관한 것일 때 일관성 있는 기호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 한국시대구분은 KDC의 조기표 중 한국시대구분표와 유사한 전개를 보인다. KDC의 한국시대구분표에서의 시대구분은 911.01-.077에 전개되어 있는데, 이 전개를 간단히 제시하면 911.01 원시시대, 911.02 고대, 911.03 삼국시대, 911.04 고려시대, 911.05 조선시대, 911.06 항일시대, 911.07 대한민국시대이다. 이것은 앞서 제시한 HUDC의 한국시대구분과 원시시대를 제외하고 조기성을 가지는 것이다.

바. 국어구분

국어구분은 자료가 특정 언어로 된 것일 경우, 이 언어를 표현하기 위해 각 언어를 별도의 표로 구분해 놓은 것이다. HUDC에서는 각 국어를 9개로 구분하였는데, 한국어가 가장 먼저 전개되었다. 이 국어구분표는 700 어학의 강전개와 조기성을 갖도록 하였다. 먼저 국어구분과 700 어학의 전개를 제시하면 <표 9>와 같다.

<표 9> HUDC 국어구분과 어학의 조기성

국어구분		700 어학	
1	한국어	710	한국어
2	일본어, 아이누어	720	일본어
3	중국어, 동양제어	730	중국어
4	영어, 앙그로색슨어	740	영어
5	로시아어, 기타 스라브어	750	로시아어
6	독일어, 기타 튀우톤어	760	독일어
7	불란서어	770	불란서어
8	이태리어, 기타 로만스어	780	이태리어
9	기타 제국어	790	기타 제국어

자료: 高在昶, 韓銀圖書分類法: 東書·洋書 共用 (서울 : 韓國銀行, 檀紀 4287[1954])를 참조하여 재편.

<표 9>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국어구분과 어학은 조기성을 갖도록 전개하였으며, 국어구분에는 “※자세한 것은 710-799를 볼 것”이라는 지시가 있어 국어구분의 세구분은 710-799의 전개를 따르도록 하였다. 이러한 국어구분의 사용은 본표에서 “※ 국어기호로 국별구분한다” 또는 “...은(는) 국어구분 한다”는 주기로 지시된다. 이 국어구분은 분류표 전반에 걸쳐 적용되었는데, 그 사용례는 다음과 같다.

039 색인일반(索引一般)

※.1-.9는 국어구분(國語區分) 한다

510.9 관공보(官公報), 공문서(公文書)

※ 국어기호(國語記號)로 국별구분(國別區分) 한다

이러한 국어구분으로 인해 자료가 특정 국어로 된 것일 때 일관성 있는 기호를 사용하게 하였다.

사. 국어공통구분

국어공통구분은 700 어학류에 적용된 조기표로 어학과 관련된 공통된 특성을 별도로 마련한 것이다. HUDC에서는 이러한 국어공통구분을 크게 9가지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이 구분은 NDC의 국어공통구분과 거의 일치한다. 먼저 한은도서분류법과 NDC의 국어공통구분을 비교하면 <표 10>과 같다.

<표 10> HUDC와 NDC의 국어공통구분 비교

HUDC <sup>a</sup>		NDC <sup>b</sup>	
1	음운, 문자 철자	1	文字, 音韻
2	어원	2	語原
3	사서(辭書)	3	辭書
4	어휘	4	語彙研究
5	문법	5	文法
6	작문	6	作文, 修辭學
7	독본, 해석, 역주, 회화	7	解釋, 會話, 讀本
8	방언, 속어	8	方言, 俗語
9	망계어(傍系語)	9	傍系語

자료 : a 高在昶, 韓銀圖書分類法: 東書·洋書 共用(서울 : 韓國銀行, 檀紀4287[1954]).

b 森清, 日本十進分類法: 和漢洋書共用分類表及相關索引, 新訂6-A版(東京 : 日本圖書館協會, 1951)를 참조하여 재편.

<표 10>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두 분류표의 어학구분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NDC의 국어공통구분이 어학인 820-898의 각 국어에 전개된 것과 동일하게 한은도서분류법의 국어공통구분도 710-799의 각 국어에 전개하였다.

이 국어공통구분은 700 어학류에만 적용하였는데, 710 한국어, 720 일본어, 730 중국어, 740 영어, 850 러시아어에는 이미 적용하여 본표에 전개하였다. 그러나 760 독일어 이후에는 본표에 전개하지 않고, 분류항목 아래 주기로써 지시하였다. 국어공통구분을 지시한 주기는 “※7 △1~7 △8은 751~758과 (특)같이 세분 한다”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국어공통구분의 주기가 제시된 것은 760

독일어, 770 불란서어, 780 이태리어 이다. 이러한 국어공통구분으로 HUDC는 각 국어의 특성과 관련된 것을 일관성 있게 표현하였다.

이 국어구분은 KDC의 조기표 중 국어공통구분표와 유사한 전개를 보인다. KDC의 국어공통구분은 -1 음운 및 문자, -2 어원, -3 사전, -4 어휘, -5 문법, -6 작문, -7 독본, 해석, 회화, -8 고어·방언으로 앞서 제시한 HUDC의 국어구분과 거의 동일한 조기성을 가진다. 단지 사용한 어휘가 HUDC는 NDC와 더 유사하였다.

아. 문학형식구분

문학형식구분은 800 어학류에 적용된 조기표로 문학의 각 형식을 별도의 표로 만든 것이다. HUDC에서는 문학형식을 9개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NDC의 문학형식구분과 유사한 점이 많다. 먼저 두 분류표의 문학형식구분을 제시하면 <표 11>과 같다.

<표 11> HUDC와 NDC의 문학형식구분 비교

HUDC <sup>a</sup>		NDC <sup>b</sup>	
1	시가 (詩歌)	1	詩
2	희곡	2	戲曲
3	소설	3	小說
4	전집, 선집	4	エッセイ
5	수필, 소품	5	日記, 紀行
6	일기, 기행	6	書簡
7	서간	7	諷刺, 滑稽
8	풍자, 유우모아	8	全集, 選集
9	방계문학		

자료 : a 高在昶, 韓銀圖書分類法: 東書·洋書 共用(서울 : 韓國銀行, 檀紀4287[1954]).

b 森清, 日本十進分類法: 和漢洋書共用分類表及び相關索引, 新訂6-A版(東京 : 日本圖書館協會, 1951)를 참조하여 재편.

HUDC는 NDC의 문학형식구분에는 없는 방계문학을 마지막에 전개하한 것과 단지 전집 및 선집의 순서가 다른 것에서 차이가 있으며, 그 외에는 NDC에 있는 주제와 동일하다. 이러한 문학형식구분은 810 한국문학, 820 일본문학, 830 중국문학, 840 영미문학에는 이미 적용되어 본표에 전개되어 있으며, 850 러시아문학부터는 본표에 전개하지 않고 주기에 문학형식구분의 적용을 지시하고 있다. 문학형식구분의 사용을 지시하는 주기의 형식은 “840과 똑같이 세분 한다”로 제시된다. 이러한 주기는 850 러시아문학, 860 독일문학, 870 불란서문학, 880 이태리문학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문학형식구분을 통해 한은도서분류법은 800 문학류에서 각 언어별 문학에 일관성 있는 문학형식을 전개할 수 있다.

HUDC는 이전의 분류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도의 조기표를 마련하여 적용한 최초의 분류표

로 보이며, 이러한 조기표의 사용은 NDC를 참조한 것으로 추측된다. HUDC 이전의 분류표 중 별도의 조기표를 사용한 것으로는 박봉석의 조선공공도서관분류표사안과 동서도서분류표, KDCP를 들 수 있는데, 이들 분류표에서는 형식구분에 해당하는 분류표만 있었다. 그리고 HUDC가 편찬될 당시 DDC 15판도 역시 형식구분(Form divisions)<sup>23)</sup>만 있었다. 게다가 HUDC가 사용한 조기표는 NDC와 매우 유사하다. 이러한 과정을 볼 때, 한은도서분류법의 조기표는 NDC를 주로 참조하여 편찬된 것으로 보인다.

HUDC는 조기표의 본격적인 사용을 시도한 분류표이면서도, 분류표에 주기(notes)를 처음으로 사용한 분류표이기도 하다. HUDC 이전의 분류표들은 기호칼럼과 분류항목칼럼만이 있었는데, HUDC는 여기에 주기를 추가하여 분류표에 마련된 조기표들의 적용을 지시하였다.

그리고 HUDC의 조기표 중 한국시대구분과 국어구분은 KDC의 한국시대구분표 및 국어공통구분표와 매우 유사한 조기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우리나라의 역사적 시대구분이 거의 동일하게 구분되는 것이나, HUDC와 KDC이 별도의 한국시대구분표를 마련하였으며 이 두 구분표의 시대구분과 기호의 조기성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HUDC가 KDC의 편찬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비록 NDC를 주로 참조하였다 하더라도 HUDC는 우리나라의 문헌분류사에서 의미 있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4. 개정사항

HUDC는 1954년 초판과 1981년 개정판이 간행되었다. 이 절에서는 이 두 판사이의 개정사항을 밝혀 보고자 한다.

먼저 초판은 주제를 한글과 한자, 영문을 병기(並記)하였으나, 수정판은 한자와 영문만을 병기하였다. 그리고 앞선 3장에서 언급한 대로 수정판은 사회과학분야를 중점적으로 수정·보완하였으며, 그 중 초판의 수록 어휘 중 고어(古語), 외래어, 방언 등을 표준어휘로 수정하였으며 특히 금융·경제 분야에 새로운 용어를 수록하였다.

제I표와 제II표에서는 기존 기호에 분류항목의 추가나 외래어의 표기를 변경하였다. 예를 들면 제I표에서는 090 한국은행 → 한국은행자료로 변경하였으며, 제II표에서는 120 동양철학 → 동양철학, 동양사상으로 추가되거나 750 러시아어 → 러시아어로 변경되었다.

제III표에서는 새로운 분류기호가 신설되거나 기존 기호에 분류항목의 추가나 외래어의 표기를 변경하였다. 특히 제III표에서는 새로운 주제가 신설된 것이 많았다. 예를 들면 010 도서관 → 도서관학, 정보과학으로 정보과학이 추가되어 016.5 정보과학이 신설되었다. 특히 신설된 주제가 많은

23) Melvil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15th ed.(New York : Forest Press, 1951), p.lv.

분야는 310 토목공학과 460 상업, 530 경제, 550 재정, 560 사회, 928 아라비아반도, 940 아프리카, 950 북아메리카이다. 이 중 900 역사에 속한 주제들의 신설은 각 지역이나 국가에 대해 추가 세분으로 인한 신설이며, 나머지 310, 460, 530, 550, 560 등에 대한 신설은 새로운 주제의 추가로 인한 신설이었다. 그리고 제Ⅲ 표에서도 역시 외래어표기의 변경이 있었으며, 고어의 변경이 있었다.

수정판에서 이미 언급한 대로 주류 중 가장 많은 변경과 새로운 주제의 추가가 이루어진 것은 사회과학분야였으며, 이 외에 모든 주류에서 수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전면적인 개정이 아니라 새로운 주제의 추가로 인한 새로운 분류기호의 신설과 용어를 변경한 정도의 수정으로, 초판을 보완한 정도의 개정으로 볼 수 있다.

조기표에서의 변경은 한국지방구분에서 서울특별시 1, 경기도 아래 추가되었으며, 9. 제주도가 신설되었다. 이외에 조기표에서의 변경은 없으며, 권말에 초판에는 없던 상관색인이 추가되어 분류표 이용에 편이를 기하였다.

## V. 결 론

이 연구는 한은도서분류법(HUDC)의 편찬 및 개정 경위와 관련 분류표와의 비교 및 분류표 자체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① 주류는 주로 DDC와 NDC를 참조한 것으로 보이나, 주류의 주제배열 순서는 인문사회과학 다음에 이공학을 배정한 DDC 및 NDC와는 달리 한은도서분류법은 이·공학 다음에 인문사회과학을 배정하였다.
- ② 주류 이하 강목의 전개에서 HUDC는 NDC와 KDCP를 주로 참조하였다. NDC를 주로 참조한 유는 총기, 철학, 자연과학, 예술, 역사이며, KDCP를 주로 참조한 유는 종교, 어학과 문학이다. 두 분류표를 모두 참조한 유는 공학, 산업이다.
- ③ HUDC는 한국은행의 특성을 분류표에 반영하였는데, 090과 사회과학분야가 그것이다. 090에는 한국은행에서 간행한 자료를 한곳에 모으도록 하였으며, 사회과학분야의 전개에서 은행자료실용과 일반도서실용을 별도로 마련하였다. 은행용 사회과학분야에서는 은행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금융, 은행, 재정, 통계에 대한 자료를 한곳에 모을 수 있도록 하여 이용에 편리함을 기하였다. 일반도서실용 사회과학분야는 NDC를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 ④ HUDC는 8개의 조기표를 마련하여 분류표전반에 걸쳐 적용함으로써 조기성을 기하였는데, 이 조기표들은 대체로 NDC의 조기표와 매우 유사하여 NDC를 주로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별도의 조기표와 조기표의 사용을 지시하는 주기의 사용은 비록 NDC를 참조하였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편찬된 분류표에서는 처음 나타나는 특성이다. 그리고 조기표 중에서 한

국시대구분과 국어구분은 KDC와 조기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HUDC가 KDC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HUDC가 KDC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KDC의 편찬에서 DDC와 더불어 동양관계 및 기타 부문에서 다른 분류표보다 우리가 사용하기에 편리하다는 평이 있는 NDC를 기본자료로 하였기 때문에<sup>24)</sup> NDC를 주로 참조한 HUDC와 KDC가 조기성을 가지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 ⑤ HUDC는 주로 NDC를 참조하였으나, 분류표 전반에 걸친 주제의 전개에서 한국을 가장 먼저 전개하여 자국우위의 특성을 명확히 보였다.
- ⑥ 초판과 수정판을 비교한 결과, 수정판은 초판을 보완하여 초판의 틀을 최대한 깨지 않으면서 새로운 주제의 추가와 용어의 변경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HUDC가 사용될 수 있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관색인을 새로이 마련하여 분류표의 기본조건을 갖추면서 편의성을 기하였다.

한은도서분류법은 은행도서실분류표의 특성을 가지도록 편찬되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지도록 한 것에는 한국은행과 관련된 주제들을 한곳에 모으도록 한 것이 대표적인데, 이를 위해 사용한 장치들은 주기와 문자를 사용하고 특정 주제(사회과학)에 대한 별도의 전개를 한 것이다. 이와 관련된 것의 구체적인 예는 4.1과 4.2에서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법들을 현재 KDC에서도 적용하여 주요 분류항목에 주를 달아 실제 분류의 편리성을 도모하였으며 동일한 주제에 대하여 두 곳에 분류할 수 있도록 하여 관중별 특성과 이용자층의 성격에 따라 분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25)</sup> KDC가 HUDC에서 한국은행정보자료실에 맞게 특정 주제를 한곳에 모으도록 한 방법을 적절한 수준으로 적용한다면, KDC를 사용하는 도서관은 분류표에 근거해서 좀 더 자관(自館)에 맞는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高在昶, 韓銀圖書分類法: 東書·洋書 共用. 서울: 韓國銀行, 檀紀4287[1954].  
 金正昭, 資料分類論. 대구: 啓明大出版部, 1983.  
 大韓金融團, 韓國金融二十年史. 서울: 大韓金融團, 1967.  
 朴奉石, 朝鮮十進分類表. 서울: 國立圖書館, 檀紀4280[1947].  
 李丙洙, 韓國十進分類法解說.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68.

24) 李丙洙, 韓國十進分類法解說(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68), p.11.

25) 韓國圖書館協會 韓國十進分類法解說編纂委員會 編, 韓國十進分類法解說(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97), p.4.

- 任鍾淳. 分類表比較研究. 서울 : 연세대학교도서관학과, 1963.
- 최달현, 이창수. 정보자료의 분류와 주제명.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5.
- 韓國圖書館協會. 韓國十進分類法. 第4版. 서울 : 韓國圖書館協會, 1996.
- 韓國圖書館協會 韓國十進分類法解說編纂委員會 編. 韓國十進分類法解說.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97.
- 韓國銀行. 韓國銀行四十年史. 서울 : 韓國銀行, 1990.
- \_\_\_\_\_. 韓國銀行五十年史. 서울 : 韓國銀行, 2000.
- 韓國銀行 圖書資料室. 韓銀圖書分類法. 서울 : 韓國銀行, 1981.
- 森清. 日本十進分類法: 和漢洋書共用分類表及び相關索引. 新訂6-A版. 東京 : 日本圖書館協會, 1951.
- Dewey, Melvil.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15th ed. Boston : Library Bureau, 1951.

